

“독일 땅 그녀들의 이야기, 젊은 세대·다문화에 귀감 될 것”

본보 '파독 50년...간호사 스토리' 연재 고흥 출신 박경란씨

올해는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정부가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에 파견한 간호사는 1만여 명에 이른다. 독일로 떠난 사연도, 그곳에서 겪은 사연도, 지금의 모습도 각기 다른 파독 간호사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신년부터 광주일보에 '파독 50년 호남 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를 연재중이다. 필자인 고흥 출신 재독 칼럼니스트 박경란(45)씨는 당초 본보에 베를린의 문화 현장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파독 간호사 50주년 기념 공연 '현자 뮐러의 인생 가방' 제작에 참여했던 박씨는 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왔다.

“사실 독일에 사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독일 한인 동포 사회의 근간이 된 파독 간호사를 배제할 수가 없지요. 저의 경우는 9년 전 독일에 오자마자 1년간 노인 관련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면서 1세대 어르신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인 그들과, 같은 이민자로서 소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파독 간호사는 주로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군요. 어떻게 독일에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독일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듯해 연재를 제안했어요. 젊은 세대 혹은 한국에 사는 다문화 세대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분

10년 전 독일 이주 후 이민 1세대 다양한 삶 접해

연출·기획·대본 맡고 간호사 직접 출연한 연극

4월 2일 서울 무대에

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베를린에서 공연했던 '현자 뮐러의 인생가방'은 오는 4월 2일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3년 전부터 연극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독일인 연출가와 한인 연기 지도자에게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베를린의 빨간구두' 대본을 썼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에 뿌리를 둔 그들의 이야기를 파독 간호사 출신 배우가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됐고, '현자 뮐러의 인생가방'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기획을 하고 대본

을 쓰기 시작해서 현재는 연출까지 맡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공연할 당시 관객들이 많이 울고 웃었어요. 평범한 파독 간호사 현재의 독일 삶이 즐거워입니다. 그녀의 병동생활, 사랑, 의사 뮐러와의 결혼과 노년 등 총 50년의 인생 스토리를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에 녹아 흐르게 했어요. 독일 다문화의 롤모델이자 이민자 통합에 기여한 바가 큰 파독 간호사의 삶을 한국 내 다문화 가정에도 보여주고, 고향의 의미를 재인식시키고 싶어 마지막 장면에는 2세의 모습도 담았어요.”

수많은 간호사들을 만날 때 그녀의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건 무엇이였을까.

“그들은 1960~70년대 20대의 젊은 나이에 독일 땅으로 왔어요. 잘 모르는 때였죠. 그 시절 그대로 청춘을 고국에 남겨두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독일에 있지만 근 40~50년의 정신 세계는 오롯이 고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제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은 요즘 파독 근로자에 대한 고국의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해서 돈 벌려고 왔는데 시간이 흘러 애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의 의지 등이 시대 정신, 정치적 이유와 맞물려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독일 땅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이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남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잡지 편집장, 기자 등으로 일했던 박씨는 2007년 남편을 따라 독일로 이주, 다양한



본보 '파독 50년 호남 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를 연재 중인 재독 칼럼니스트 박경란씨는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파독인들의 삶에 대한 에세이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와 칼럼을 모아 E북 '베를린 오마주'를 펴냈고 현재는 역사나 전쟁 동화를 써보고 싶어 습작중이다. 또 독일 인도주의 협회 '동행' 프로젝트 대외협력 팀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만든 한인 치매 노인을 위한 단체 '해로'에서 활동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독일에 살고 있는 박씨는 독일인들의 '검소함'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다. “독일인과 한국인의 가장 가장 다른 점은 검소한 것 같아요. 절 말처럼 생각하는 독일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집에 가면 정말 물도 아껴쓰고 음식을 먹을 때도 빵가루 하나 남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가난한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서도 남을 돕는 데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 것 같더군요. 배우는 게 참 많았어요. 아이들 장난감도 대물림해서 놀게 하고, 그들의 검소함이 처음엔 적응이 안됐는데 저도 지금은 알뜰과 주부가 됐어요.” 앞으로 그녀가 들려주는 파독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따뜻한 밥 같은 청춘의 사랑

DIC '밥 친구' 20~30일 공연 일변지

따뜻한 밥 한 공기 같은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극단 DIC(Dramatic Imagination)이 연극 '밥 친구' (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20~30일(수~금, 토요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 공연 일변지.

주인공은 서른 한살 동갑내기 성우와 인영. 재수 시절 만나 소식이 없게 지내던 두 사람은 우연히 옛 건물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인영은 회사 생활에 지쳐 있고, 성

느린 우체통 'Happy U·Letter' 이용자 수기 공모

유·스퀘어 25일까지

유·스퀘어가 오는 25일까지 느린 우체통 'Happy U·Letter'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공모한다. 유·스퀘어는 지난해 1층 영풍문고 앞 실내공간에 시민의 마음을 전하는 느린 우

체통 'Happy U·Letter'를 운영하고 1000여건의 엽서를 접수받아 2주전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Happy U·letter'는 시민들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신, 손편지를 작성하면 1년 후 해당 주소지로 발송해주는 무료 이벤트다. 공모는 지난해 유·스퀘어 'Happy U·

우'는 타인의 버려진 물건을 모으며 자기만의 생활에 빠져 있다.

건물 옥상에서 보내는 그들의 짧은 점심 시간은 서먹하기만 하다. 꿈도 희망도, 연애도 결혼에도 심드렁한 두 사람의 옥상 점심 시간이 계속 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정문의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으며 김장준·오혜리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222-70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계간지 '창' 34호 나와

지역문화교류추진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4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지난해 '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주제로 열린 지역문화포럼 내용을 실었다.

이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전당의 미래를 조명해보고, 전당의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실천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전당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광주'와 2세션 '조성사업과 광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에는 이승권 조선대 교수와 천득염 전남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각 분야별 18명의 전문가가 제언한 다양한 토론의견을 담았다. 전 재단이사장이자 민중시인인 '고



(재) 문병란 추모특집'도 꾸렸다. 김정희 '창' 편집위원장이 '문병란 시인의 생애와 시'를 통해 암울한 시대에

회화병 대신 시를 던진 문병란 시인에 대해 조명했다. 또 10년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는 김옥진 마늘놀이터 대표를 소개했다. 그밖에 학동 백화마을과 광주백범기념관, 청년성장공동체 '아모티움동조화'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천의영 광주폴리 III 총감독의 '뽀뽀폴리(Fun & pun folly)',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의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 등도 실렸다.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맥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맥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광주점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홀몰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